

# 자동차 구입방식 - 비용면에선 장기렌탈(LPG)이 가장 유리

한국LPG가스공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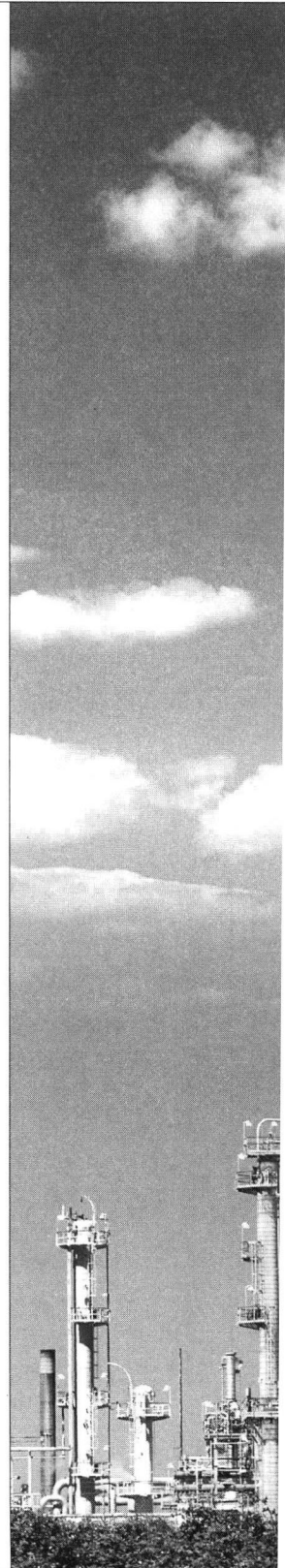
사실상 가장 비용을 적게 쓰려면 일시불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렌탈의 경우 휘발유차를 이용한다면 리스와 렌탈이 비슷한 수준이다.  
자가구입과 리스, 렌탈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구입자가 자신의 조건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

승용차 구입 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살 때와 리스를 이용할 때 그리고 장기로 빌려 탈 때를 비교한 결과 장기렌탈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협회 자체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랜저TG Q270을 3년간 이용할 때 자가용은 매월 162만2,000원이 필요한 반면 오토리스는 134만원, 장기렌탈은 117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사용 후 중고차로 되팔 때를 감안해도 자가구입차는 월 130만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오토리스는 118만원, 장기렌탈은 105만원이 든다. 이 수치는 공인연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연비를 고려하면 각각 약간의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그랜저TG Q270 럭셔리를 개인이 직접 살 경우 구입가격은 2,872만원이다. 여기에 에다 등록세와 취득세 기타 제반비용을 더하면 3,124만원이 된다. 이를 36개월 할부로 이용하면 선수금 572만원을 내고 나머지 2,3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돌리면 결국 매월 77만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오토리스는 보증금 575만원 외에 매월 75만원의 리스료를 지불한다. 또 렌탈은 보증금 438만원 외에 매월 90만7,000원을 낸다. 매월 납입금만 보면 리스가 가장 저렴하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보증금은 자동차 사용이 끝나면 돌려 받는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구입비용만 계산했을 경우이며, 3년간 이용할 때 들어가는 유류비를 포함하면 렌트의 비용이 가장 낮아진다. 렌터카는 대부분 LPG를 연료로 쓴



차량구입방식에 따른 소요비용 분석\*

구분	자가차량	오토리스	장기렌탈(LPG)
차종	그랜저TG Q270럭셔리	그랜저TG Q270럭셔리	그랜저TG Q270럭셔리
차량구입	일시불	보증금(20%) 5,750,000원 월 리스료 : 750,700원	보증금(20%) 4,382,000원 월 리스료 : 907,000원
	할부(36개월) 이자 8.25%		
보험료+등록비+취득세	구입자부담	리스료에 포함(보험료 제외)	리스료에 포함
자동차세	577,820원/년		
차량정비	차주부담(200만원/년)	선택사항(200만원/년)	
연간유류비(법인기준)	3만km÷9.4km×1,460원 = 4,659,574원	3만km÷9.4km×1,460원 = 4,659,574원	3만km÷7.5km×800원 = 3,200,000원
사고처리	차주, 보험회사	리스사(보험가입시)	리스사
사고기간중 운행	별도비용	리스사 대행(보험가입시)	동급 차량 제공
총 소요비용(36개월)	할부원리금 26,042,112원	리스료(36개월) 27,025,200원 보증금 1,733,460원 차량정비 6,000,000원 유류대 13,978,722원 등록비+부대비용 3,452,870원 선수금 5,720,000원	리스료(36개월) 32,652,000원 유류대 9,600,000원
	보험료 1,500,000원		
	자동차세 1,733,460원		
	차량정비 6,000,000원		
	유류대 13,978,722원		
	등록비+부대비용 3,452,870원 선수금 5,720,000원		
합계	58,427,164원	48,353,922원	42,252,000원
월 소요비용	1,622,977원	1,343,164원	1,173,667원
실제 월 소요비용 (중고매각 / 보증금 환수)	<b>1,303,866원</b>	<b>1,183,442원</b>	<b>1,051,944원</b>

\*중고차 최대잔가 : 40%적용, 유류가(2005년 12월 기준)  
\*자료제공 : 현대자동차 / LG오토리스 / 다음다이렉트장기렌탈

다. 또 자가구입이나 리스의 경우 매년 자동차세 57만원을 내야 하지만 렌트는 세금 부담이 없다. 결국 3년간 운행할 때 자가구입은 총 5,842만원이 드는 반면 리스는 4,835만원이 들어간다. 또 렌탈은 4,225만원이 필요하다. 자가구입 시 3년 뒤 중고차로 되팔아 1,14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4,694만원이 드는 셈이다. 또 리스의 경우 보증금 575만원을 되돌려받으면 총 소용비용은 4,260만원, 렌탈은 보증금 438만원을 제한 3,787만원이 들어간다. 결국 렌탈의 비용이 가장 적은 셈이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가장 비용을 적게 쓰려면 일시불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라며 “렌탈의 경우 휘발유차를 이용한다면 리스와 렌탈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가구입과 리스, 렌탈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구입자가 자신의 조건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